

박선호 차관, “PPP 사업을 통한 해외 인프라 개발 확대 기대”

KIND-WB이 공동 주최하는 인프라 거버넌스 회의에 참석

-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5월 23일(목)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(이하, KIND)가 월드뱅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「인프라 거버넌스 회의」에 참석하여, 민관협력 투자개발형사업(PPP 등)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.
- 본 회의는 월드뱅크 주도로 2017년에 처음 개최되어 지난 1, 2차 회의가 모두 아프리카에서 열렸으며, 금번 3차 회의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세계은행(World Bank)이 KIND에 공동개최를 제안하여 이뤄지게 되었다.
 - 본 회의에는 방글라데시, 몽골 등 아시아 국가의 정부 고위인사와 주요 국제기구 및 다자간개발은행의 인프라 전문가, 그리고 국내·외 기업 관계자 등 약 40개국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였다.
- 박선호 차관은 본 행사에서 “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오며 국내·외적으로 다양한 인프라 개발 성과를 이룬 만큼,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 국가들에게는 최적의 개발 파트너가 될 수 있다”는 점을 언급하였다.
 - 또한, 박차관은 해외 인프라 개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KIND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, 인프라 개발 정책펀드 조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2019. 5. 22. (수)

국토교통부 대변인